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자 대상 프로모션... 193만 소상공인 매장서 사용 가능 모바일상품권 5만원 지급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로모션을 9월에도 이어간다.

전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7월부터 시작해 6개월간 진행된다. 소기업 대표 및 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사랑상품권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행하는 모바일 소비쿠폰으로, 전국 약 193만개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쿠폰은 비결제이 어플에서 PIN 번호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은 제로페이 앱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

8월 말 기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한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자는 1만 47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 상승했다. 노란우산은 2007년 제도 출범 후 누적 가입자 수 314만명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갑작스러운 폐업과 노후를 대비할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혜택과 연 복리 이자로 목돈 마련에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은 물론 노후 대비 사업 재기 등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노란우산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홍보모델을 선발해 광고 출연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마감한 제4회 2025년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에는 1,513명이 지원해 성황리에 접수를 마쳤다.

최종심사는 9월 말 진행될 예정이며, 선발된 모델은 '26년도 TV 광고 출연, SNS 콘텐츠 제작, 행사 공연 등에 참

여할 수 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로모션을 통해 온라인 가입자 증가뿐 아니라, 노란우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필수 제도로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로모션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정보는 노란우산 홈페이지(8899.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9월 1일부터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과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을 연계한 상품 'JB 달달이 썩 예·적금'을 출시했다.

‘JB 달달이 썩 예·적금’ 출시

전은, 월이자 복리 혜택 · 이벤트 우대금리로 금융생활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9월 1일부터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과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을 연계한 상품 'JB 달달이 썩 예·적금'을 출시하며, 12월 31일까지 이벤트우대 이율을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출시된 이번 신상품은 예금의 월이자가 적금 계좌로 자동 이체되어 월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다양한 우대금리와 이벤트 혜택을 통해 고객들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JB 달달이 썩 예금'은 3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한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

금이며, 6개월 최고 연 2.75%(기본 연 2.45%), 12개월 최고 연 2.65%(기본 연 2.35%) 금리이며, 마케팅 동의 시 0.1% 우대이율과 가입 직전 6개월 동안 원화정기예금 보유 이력이 없는 첫 거래 고객(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에 한해 0.2%의 이벤트 우대이율이 제공된다. 이벤트 판매한도는 3,000억원이다.

함께 출시되는 'JB 달달이 썩 적금'은 초화불입금 1천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이며, 6개월 최고 연 3.02%(기본 연 2.50%), 12개월 최고 연 3.10%(기본 연 2.40%) 금리가 제공된다.

전북생생장터, 생생에 생생을 더한 생생플러스관 OPEN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 플랫폼 전북생생장터 생생플러스관을 9월 1일에 개관했다.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장터'로 자리 잡은 전북생생장터 이미지를 바탕으로 건강관리, 선물용으로 손색없는 프리미엄 상품을 모아 생생플러스관을 추진했다.

생생플러스관은 품질, 안전, 특별한 가치를 중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환경 농식품 인증, 우수 상품 지정, 국가공인 품질 인증 여부를 중점으로 고려된 상품으로 구성했다.

전북생생장터의 생생플러스관은 전주 이강주, 장수 사파, 진안 인삼주, 무진장 한우, 군산 계장, 부안 간척지 쌀, 임실 치즈 등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상품 23개가 선정되어 판매 중이다.

윤여봉 원장은 “이번 생생플러스관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할 만한 높은 품질의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장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데이터 활용 ·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국립군산대, 2학기부터 정규 교과목에 가명정보 교육 반영

국립군산대학교와 전북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전북TP 운영)가 협력해 오는 2025년 2학기부터 정규 교과목에 '가명정보' 교육을 도입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제도다. 이번 사례는 지역 대학에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가명정보 교육을 정규 교과목에 도입한 첫 사례이다.

국립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는 2025년 2학기 교과목인 'DevOps 기반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가명정보 이론과 실습을 도입하여 2주간 △가명

정보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명정보 활용 이론, △SQL을 활용한 가명처리 실습 교육과 △데이터베이스 기반 가명정보 결합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가명정보 및 가명처리의 이론 강의를 지원 하는 동시에, 팀 프로젝트에는 센터에서 보유중인 장비 및 솔루션을 제공해 현장 실무형 학습을 돕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가명처리를 경험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규 센터장은 “국립군산대학교의

정규 교과목 가명정보 교육 도입은 지역 대학과 협력한 가명정보 교육의 첫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여러 대학과 협력을 확대해 가명정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가명정보 활용지원 전문기관으로, 고도의 보안 기술과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및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의 기술·컨설팅·교육 지원을 원하는 기업·기관·학교는 (226-9078)에 문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

중소벤처기업부 노동석 차관,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구조적 한계 해소

중소벤처기업부 노동석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지금까지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간 중기부와 전상연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매출 금액을 30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타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장의 혼선을 방지,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매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가의 사치제품 및 기호 식품 등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련한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노동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전상연 이충환 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바이오진흥원, 제12회 바이오지식포럼문샷 성료

(제)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1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농생명·식품·바이오 분야의 유관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바이오 지식 포럼 문샷(Moonshot)'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지식포럼(문샷)'은 바이오진흥원이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바이오 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한 지식 확산 프로그램으로,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4년부터 운영 중이다. '문샷(Moonshot)'은 1969년 미국의 아폴로 계획처럼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적 연구를 의미하고 본 포럼의 기획 방향성과 혁신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포럼은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장관(전북대학교 교수, JBNU 지역발전연구원 원장)을 초청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맞춤형 케어푸드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강연에서는 △의료기술의 진화 방향 △맞춤형 케어푸드로 환자 중심 예방 의료 △디지탈 헬스케어 기반 의료기기 발전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계획 등을 핵심주제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이 가져올 미래 의료 환경의 전환 가능성을 제시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